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만족도 30%

주거비·주거환경 개선 최우선 과제로 꼽아

■ 광주발전연구원 '입주민 실태조사'

광주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30.9%에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꼽혔다.

10일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시의 회로부터 의뢰받아 광주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10개 단지 입주민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주민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결과 응답자 36.3%가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이러 ▲경제적 여건(생업) 개선 25.9% ▲빈곤의 대물림 현상 11.9% ▲주민 편의시설 확보 11.4% 등의 순이었다.

주거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0.9%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16.9%는 불만족, 51.7%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주거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 사유로는 단지 내 읍주·고성방가(54.8%)와 소음 및 악취(53.7%), 임대료 및 관리비(52.7%) 등이었다.

주거환경 중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24.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주택면적(13.5%), 단지 내 읍주(12.7%), 청결 및 하자보수 관리상태(8.0%),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6.9%), 소음 및 악

취(6.5%) 등의 순이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는 65.9%가 생활비 및 생계지원을 꼽았으며, 이어 의료서비스(30.6%), 노인 돌봄 서비스(16.9%), 직장 앞선과 직업훈련(15.9%)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내부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3%가 주거면적이 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은 방음(27.8%), 난방시설 및 단열(24.1%),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22.1%), 화



광주시의회는 10일 5층 회의실에서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병문·조오섭·허문수·강은미·홍인희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현정부 인사청문 대상자 82%

세금탈루·투기·위장전입 해당

靑 경호처 5급이상 영남 35%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이었던 인사 10명 중 8명 꼴로 세금탈루·부동산투기·병역기피 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10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

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공직자는 이달 말 현재 총 89명(중복인원 포함시 95명)으로 이 중 73명(82.0%)이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논문표절 등 이른바 '4+1 필수 불합과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또는 탈루·체납 등 세금관련

의혹이 57명(64.0%)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투기 의혹 44명(49.4%), 위장전입 의혹 29명(32.6%), 병역기피 의혹 16명(18.0%), 표절 등 논문 관련 의혹 13명(14.6%) 순이었다.

인사청문 대상자 89명 중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동진 감사원장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8명이 낙마해 낙마율은 9.0%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58명 중 2명이 낙마해 낙마율이 3.4%인 것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3개 항목 이상에서 의혹이 제기된 27명 중 22명(81.5%)에 대해 임명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경호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직급별 출신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직원들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 총 43명 중 22명(51.2%)이 영남 출신으로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242명 중 34.5%가 영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21.6%였다.

그러나 직급별로 보면 정원이 1명인 1급에 영남 인사가 임명된 것을 비롯해 2급 7명 중 5명이 영남출신으로 채워진 데 비해 광주·전남 출신은 1·2급은 없고 3급 이상 고위직 중에도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벌판도 변했다... 박현주·김정주 10위권



박현주 회장, 신선호 회장, 안철수 원장, 이수만 회장

재벌 가문 출신의 독무대였던 한국 10대 부자 명단에 광주 출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의 이름이 올랐다. 특히 자수성가형 인물이 대기업 총수의 부를 대물림한 기업인을 제치고 10위권 부자 대열에 잇따라 합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한국 재벌의 판도 변화가 계속될 지 주목된다.

◇박현주·김정주 10위권 진입= 10일 재벌닷컴이 1813개 상장사, 1만4289개 비상장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배당금,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개인재산 1조원을 넘는 부자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358억원으로 종합순위 8위다. 김회장의 종합순위는 22위에서 14계단이나 상승했다.

엔엑스씨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을 주도해온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옛 넥슨) 회장, '벤처부자'에 등극했으나 올해는 1조251억원으로 12위로 집계됐다.

자=재벌닷컴이 발표한 2011년 국내 400대 부호 명단에는 그동안 재산 규모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1조원 거부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개인재산 1000억원 넘게 가진 사람은 66명이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연애기획콘텐츠 업체의 대주주들이 신흥부자로 급부상했다.

정계 진출 여부로 관심을 받았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재산은 안철수연구소의 지분가치 등을 합쳐 1354억원(198위)에 달한다. 안철수연구소의 주가 급등으로 안 원장의 재산 가치는 작년 707억원에서 갑작스

준으로 늘었다. 종합순위도 작년 312위에서 114계단 뛰어올랐다.

인기 아이돌그룹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을 거느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 이수만 회장의 재산액은 1865억원이다. 종합순위는 297위에서 146위로 151단계 상승해 연예인 출신 중 최고 부자가 됐다.

1970년대 '울산산화'의 주인공인 고흥 출신 신선호 센트럴시티 회장은 한때 몰락했으나 강남 고속터미널 부지를 팔았으며 재기에 성공해 5592억원(39위)의 재력가로 부상했다. 축구선수 차두리씨의 장인 신철호 임페리얼팰리스 회장은 강남 임페리얼팰리스 호텔과 국외 리조트 등을 포함해 1096억원(243위)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1조 거부 25명... 6명은 자수성가 안철수·이수만 천억대 신흥부자

울산산화 신선호 5500억 '부활'

해 19명보다 6명 늘어났다.

상속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부를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정주 엔엑스씨(옛 넥슨)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이민주 에이티파트너스 회장, 김준일 락엔락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6명이다. 박현주 회장과 김정주 회장은 상위 10대 부자 대열에 처음 진입했다. '금융가의 황제'로 불리는 박현주 회장의 개인재산은 2조4683억원으로 6위다. 1년 전 1조1841억원보다 무려 1조2842억원 늘어나 순위가 작년 14위에서 8단계 경천 뛰었다.

15년 전 넥슨을 창업하고서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등으로 온라인게임 돌풍을 일으킨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의 개인재산은 2조

케이블방송 C&M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터트린 이민주 에이티파트너스 회장의 재산은 1조3166억원(17위)으로 평가됐다.

플라스틱 주방용품으로 선봉을 일으킨 락엔락 김준일 회장의 재산은 1조635억원(22위)이다. 국내 바이오업계 선두주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지 10여 년 만에 1조210억원의 재산을 일궈 25위에 올랐다.

1조원대 부자 중 19명은 재벌가 출신이다. 전체 순위 1위인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재산은 8조5265억원이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7조1922억원으로 2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조244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안철수·이수만 천억대 신흥부

"PKO 파병 1조5000억 소요"

박우순 의원 분석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평화유지 활동에 나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병에 모두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박우순 의원이 10일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PKO 파병에 모두 1조50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엔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병력 공여국에 대해 활동 경비를 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소요 예산의 52.7%인 830억여원만 유엔으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파병 나라별로는 동티모르 파병 비용(429억원)의 보전율이 9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서부 사하라(47억원) 82.8%, 레바논 동명부대(851억원) 42.7%, 아이티 단비부대(245억원) 11.56% 등의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호남지역 출발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5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419,000원**
상해,항주,황산 4일 **47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5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49,000원**

마감임박 20년 한정 단 하루!

10월15일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399,000원~

전통 관광5일 **589,000원**
고품격JAU+ 관광5일 **799,000원**
품격 골프5일(54H) **1,099,000원**

광양훼리 큐슈3박4일 **199,000원**
8/28~12/21(매주 수,일출발)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 10,11월 출발기준 -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영,프,러우) 10일 **2,090,000원**
홍콩평타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멜크 동유럽5국9일 **1,290,000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원**
알타이티워+서유럽6국12일 **1,790,000원**
스페인,포르투갈10일 **1,9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이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중국

홍콩평타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원**
홍콩평타 상해4일(풀옵션) **349,000원**

게임(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원**
항공이동 서안,구채구5일 **1,1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복선 10일 **1,990,000원**
노티프 미서부,태평양일주9일 **1,390,000원**
3대캐년 미서부완전일주 **1,6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조선대점 227-8255

진월점 382-5353

첨단점 233-2627

총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